

감리교 최고의 역사학자 고 앨버트 아우틀러는 1961년, 웨슬리 전통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기본 물음을 제기하며 존 웨슬리를 신학자로서 재평가하라고 요청하며 독자들에게 이렇게 주장했다.

“웨슬리는 신학적 거인도 아니었고, 체계를 세운 이도 아니었으며, 신학자들 중의 신학자도 아니었다.

기획과 의도에 있어서 웨슬리는 대중신학자였다.”

1970년대까지도 아우틀러는 웨슬리를 여전히 대중신학자로 묘사했다. 18세기의 웨슬리가 “그 어떤 학파에 속하지도 않았고 또 학파를 세우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신학자들중의 신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아우틀러는 여전히 웨슬리를 대중신학자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때에 아우틀러는

선교와 실천을 강조하는 현대 교회에게 웨슬리의 신학방법이 얼마나 적합한지 새롭게 눈 뜨게 되었다.

실천신학자 존 웨슬리

놀랍게도 웨슬리 자신은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신학’이란 용어대신 ‘다양한 형태의 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웨슬리가 편집한 [기독교 총서]를 소개하는, ‘꼭 읽어야 할 실천신학의 단편으로 발췌하고 요약한 것들’이란 표현에서, 또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감리교인들의 찬송 선집]에서 사용했다.

또 다른 경우에 웨슬리는 ‘실험신학’과 ‘실천신학’이란 용어를 상호 교환하여 사용했는데, 경험이 웨슬리 신학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감각경험에 기초한 실험적 인식은 적어도 몇 가지 점에서 로크의 개념들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감각경험의 인식은 ‘객관적’ 관찰자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입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 인식은 공적이고 개인적인 차원, 가슴과 머리의 차원,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차원, 곧 모든 차원에서 기독교인 전체 삶의 차원에서의 인식이다. 그러므로 교부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웨슬리의 이러한 신학적 접근은 결정적으로 성서의 내용에 기초한다. 초기 프레더릭 맥도널드는 웨슬리가 “본질적으로 성서 신학자”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의 웨슬리연구는 웨슬리의 실천신학이 ‘교회의 과제를 방향지우는 신학을 함’에 대한 방법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설교, 예전, 신경, 절기문서, 일지, 편지에서 영국 국교회식으로 표현된 웨슬리의 실천신학은 결정적으로 인식론적이기보다는 구원론적인 성향을 보여 주고 있다. 거대한 사색적 체계 원리를 배제하고 있는 웨슬리의 주된 관심은 그의 [설교집]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p.15)

웨슬리 실천신학의 양식

웨슬리의 구원론적 중심 주제는 시작과 과정이 구원의 순서라는 정황에서 전개된다. 따라서 웨슬리 실천신학의 중심주제가 갖는 형식적 요소가 자세하게 논해지기 전에 웨슬리의 신학적 성찰이 갖는 양식, 곧 웨슬리가 신학의 중심을 이루는 양식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면에서 특별하고 독특한 색깔을 드러내는 이 같은 양식의 신학적 성찰을 지녔던 웨슬리는 ‘접속적’신학자라는 말로 표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웨슬리 신학에 대한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해석은 그 방법이 ‘이것도 저것도’이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제3의 길의 표상인 웨슬리 신학의 또 다른 접속은 율법과 복음, 은총과 행위, 사랑의 입음으로서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음으로서의 은총, 칭의와 성화, 순간과 과정, 은총의 보편성(선행은총)과 은총의 제한적(구원하는)실현,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응답, 최초의 칭의와 최종적 칭의이다. 웨슬리는 근대 신학에 비추어 볼 때 조직 신학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신학적 양식은 실천신학 영역에서는 탁월성을 보여준다.

웨슬리 실천신학의 중심주제

웨슬리의 신학 양식은 아주 중요하며 웨슬리의 신학적 성찰의 형식을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우틀러의 주장대로 웨슬리의 신학 양식이 그 자체로 방법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먼저 신학 양식이 갖는 일반적 성격 때문인 바, 중심 주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중심주제인 구원론적 동기는 다른 주요 교리들이 가장 잘 이해되도록 통합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거룩함과 은총의 중심 주제

최근 학문의 경향과는 반대로 나는 웨슬리 신학의 접속적인 풍치가 실제 그의 중심 주제나 기본적인 관심인 은총뿐 아니라 거룩함과 은총 안에 배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웨슬리가 자신의 저술에서 두루 사용하고 있는 ‘거룩함’이란 용어는 실제로는 요약한 표현으로서 거룩한/사랑의 접속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웨슬리는 중심 주제의 또 다른 축이 되는 은총을 독백적 방식뿐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총과 협력은총의 긴장으로 나타나는 접속적 방식으로 이해한다.

거룩한 사랑으로서의 거룩함 : 중심 주제의 처음 반쪽

웨슬리는 종종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나 목적을 기술하기 위해 ‘거룩함’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의 저술에서 중요한 요점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이 용어를 거룩한 사랑의 요소들로 나누어 설명한다.

웨슬리가 ‘거룩함’이란 말로 거룩한 사랑을 뜻하고자 하였다면, 거룩함을 사랑이란 말과 관련해서 의미를 밝혀낼 뿐 아니라

사랑이 거룩함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거룩함과 관련하여 웨슬리의 용어가 갖는 주밀한 상황화는 분명 다음 세대와 여러 지역에 요청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가치 있는 기획에서 오드와 로달은 본질적으로 거룩함에 대한 정의로 끝내 버린다.

웨슬리는 단순성과 순수성이 “기독교인의 거룩함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드와 로달은 이러한 웨슬리의 이해가 정적이고 충분히 관계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것이다. 대신에 이들은 “사랑이 거룩함의 마음”이라고 즐겨 주장했다.

웨슬리는 “거룩함이란 숨겨진 영광이고, 영광은 드러난 거룩함”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거룩함’이란 용어가 갖는 묘사적이고 한계를 뛰어넘는 제시적 힘이 독특한 방식으로 빛을 발하면서 사랑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특히 십자가에서 가장 겸비한 형식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염두에 없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웨슬리의 이해처럼 거룩함의 질적인 독특함이 없다면, 그렇게 이해된 사랑은 자기 - 의지나 인간의 정서가 인식한 사랑이거나 인간 이성이나 선하고 받아들이기 만하다고 판단한 사랑일 것이다.

사랑이란 “자기로부터 나와 밖을 향하는 운동이며 아래에 있는 존재자들을 향해 허리를 굽히는 운동이다. 예컨대, 사랑이란 하나님의 자기-수여이며 자기-소통이다.”

더 나아가 거룩함이 사랑을 암시하듯이, 사랑 또한 거룩함을 암시한다. 웨슬리는 “참된 기독교인의 거룩함은 그 기반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존재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거룩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거룩함에 형식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마음에 심겨져 있어서 성령의 은혜로운 활동을 통해 믿는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다.

거룩함과 은총이라는 웨슬리의 중심 주제의 처음 반쪽에 해당하는 거룩함은, 그 자체를 거룩한 사랑의 접촉으로 이해할 때 그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이 된다. 거룩한 사랑으로서의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뿐 아니라 진지한 기독교인의 삶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균형이다.

율법과 은총

거룩함과 은총이라는 웨슬리의 중심 주제는 잘 정리된 율법과 은총이라는 부차적 접촉에서 세분화된다.

이 탐구에서 웨슬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아주 중요하다. 웨슬리가 이해한 도덕법을 탐구해 보면 그가 사용한 여러 근거들이 주로 웨슬리가 속했던 영국 국교회 전통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균형을 잃은 채 도덕법의 조명과 안내를 받지 않고 열광적이며 반-율법적인 방식으로 선포하는 개신교 ‘복음 선교자들’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웨슬리는 은총을 ‘규범화된 은총’이라고 주장했다.

은총이나 복음이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율법을 설교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복음은 인간에게 죄를 확신시키는 율법의 처음 목표에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식은 율법으로 죄인들의 죄를 선고한다.”

예컨대, 웨슬리는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의 예방의 역할을 강조할 뿐 아니라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율법의 고발의 역할도 강조했다.

따라서 웨슬리는 받아들임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총 안에 계속 살아가기 위해 도덕법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실천적인 기독교인의 삶에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웨슬리는 믿음이 도덕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과 자비의 사역을 불러오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음 믿음일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시 정리하면, 웨슬리의 실천신학을 구성하는 것은 거룩함과 은총의 보다 넓은 중심 주제를 반영하는 율법과 은총이다.

진정 율법과 은총의 접촉은 웨슬리 신학의 구성이 갖는 적절성을 보여 주고 있다.